

그리스도인의 특성

골로새서 3:12-17

17 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본래 칭찬이나 존경의 의미를 가진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인류역사와 사회에 기여한바가 크기 때문에 점점 그 개념이 달라져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혹은 '그리스도의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권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말해야 합니다.

노르웨이(Norway)라는 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산에 올라갔다가 높은 바위틈에서 새 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이 소년은 바위틈에서 그 새 알을 꺼내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키우는 거위 알 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거위 알들 틈에서 산에서 가져 온 새 알이 태어났는데 너무 너무 못생긴 놈이 나왔습니다. 발 모양도 거위에 비하면 너무 못생기고, 꼬마 거위들을 제대로 따라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몸의 색깔도 거위처럼 아름답지 못하고 칙칙해서 특별히 눈에 띄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목소리까지 흉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떠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 왔습니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꼬마 새였지만 그는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고 마당 한 가운데를 충충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날개를 펴니까 이 꼬마 새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새는 구름 사이로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꼬마 새는 독수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 때까지 독수리가 거위처럼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 귀한 신분을 알지 못하고 독수리가 거위처럼 살려고 애썼듯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사신/대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파송된 대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사는 파송한 나라의 권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의 권위가 손상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먹고 살게 되어있습니다. 일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리듬인 것입니다. 인생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는 향락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직분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창조의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건강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무위도식의 허송세월은 우리의 생명을 좀 먹고 정신을 퇴보시키고 성격을 병들게 합니다. 세상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처럼 추하고 불쌍한 인간은 없습니다. 할 일이 없이 놀기만 하면 우리는 권태에 빠지고, 삶의 허무감과 무의미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맙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일을 계획할 때 기쁨이 솟습니다. 일에 열중하면 시간 가는 것을 모릅니다. 일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적당한 노동은 우리에게 왕성한 식욕을 일으키고 평안한 수면을 가져다줍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은 행복의 필수조건입니다. 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망상과 잡념이 사라집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번영합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람은 본래가 동물(動物)입니다. 동물이란 무슨 뜻입니까? 움직이는 물건이란 뜻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것이요, 활동한다는 것은 일하고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움직이되 남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힘찬 인간은 힘차게 움직이고, 약한 인간은 약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크게 움직이고 넓게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벧전 5:8) 그러므로 일보다도 일의 내용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것은 이기주의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것이 합리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을 생각을 떠나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려고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꾸만 주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봉사주의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이기주의와는 정 반대가 되는 이타주의입니다. 보통, 사람은 줄 때는 받기를 원해서 줍니다. 내가 이렇게 주면 얼마큼 받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줍니다. 그러기에 내가 준 것만큼 받지 못하면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의 심정이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봉사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그냥 주려고 하고,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주는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받겠다는 생각을 넘어 자꾸만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차원이 높고 수준이 높은 인생관입니다. 봉사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가 원해서 보수를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봉사는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행동입니다. 위대한 인물이란 위대한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봉사정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위대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방면의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야 봉사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탐욕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자는 봉사적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봉사에는 위대한 정신과 고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려면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려는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여유, 돈의 여유, 지식의 여유, 능력의 여유, 힘의 여유, 마음의 여유, 인격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남에게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많이 주면 줄수록 위대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생명을 속죄물로 주려함이라"(마 20:26-28)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봉사주의의 위대한 정신을 발견합니다. 보통 사람은 남이 나를 섬겨주고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와 반대의 입장을 강조 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봉사할 때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봉사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최대의 겸손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선생이면서 제자인 너희의 발을 씻어 준 것처럼 너희도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요 13:14 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남에게서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합니다. 주는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 6:3)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던지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적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해야 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공헌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량한 책임과 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70년 80년 살다가 가면서 과연 무엇을 남겨놓고 갑니까?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남겨 놓고 갑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남겨놓고 갑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빈 손 들고 왔다가 빈 손 들고 가야합니다. 그런데 올 때는 가지고 온 것 없이 빈 손 들고 왔지만 갈 때는 빈 손 들고 가면서 무엇인가 세상에 남겨 놓고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가야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허송세월은 인간의 최대의 수치입니다. 무위도식은 인간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무엇인가 보람된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것을 남겨 놓고 가야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저마다의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는 반드시 역할이 있습니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는 인간의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그는 인간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역할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구실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구실을 해야 합니다. 로마의 문인 키케로(Cicero)는 "감사한 마음은 최고의 덕 일뿐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믿음의 나무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1:21 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리밥에 김치 하나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믿음과 같이 장성합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될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역경과 환난 중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믿음에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감사의 마음도 적습니다. 믿음이 보통이면 감사의 마음도 보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면 감사의 마음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은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로빈슨 쿠르소(Robinson Crusoe)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분이 배를 타고 향해 하다가 파선을 당해서 무인도에서 혼자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서 고독한 가운데 섬에서 살면서 자기의 형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파선을 당한 면에서 보면 불행한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외딴 섬에 별로 먹을 것이 많지는 않으나 이것저것 먹고 살 수 있으니 굶어 죽지 않았으니 감사했습니다. 옷은 한 벌 밖에 입은 것이 없으니 불행한 일이지마는 그런 대로 섬의 날씨가 더워서 옷이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없으니 불행한 일이지마는 다행히 섬에는 해치는 맹수가 없으니 또한 감사했습니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으니 불행한 일이었으나 파선된 배가 그 섬에 와 닿으면서 배 안에 실려 있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로빈슨 쿠르소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면이 더 많다고 해서 감사의 결론을 맺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항상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채워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절을 다 외우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 장 4 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면 감사한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앞날이 걱정되더라도, 빈손으로 왔어도 이 세상에서 오늘까지 먹여주시고 입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